

지역사회복지관 중심의 마을 만들기 사업에 관한 탐색적 고찰*

—부산의 사회복지관 실무자의 경험과 의미를 중심으로—

신 유 리**

| 목 차 |

- I. 서론
- II. 문헌고찰
- III. 연구방법
- IV. 연구결과
- V. 결론 및 제언

| 국문초록 |

최근 인구의 고령화와 가족해체, 독거사, 빈곤의 가속화 등 사회문제의 발생이 심각해지면서 공동체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이 확대된다. 공동체적 활동을 통해 사회문제를 극복하고자하는 실천들도 다양한 형태로 진행된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형태로 마을 만들기에 대한 관심이 확대됨에 따라 지자체마다 관련 사업계획들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부산시도 낙후된 지역의 환경개선과 주민참여, 지역조직체간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5A02024129).

** 동국대학교 인구와사회연구소 연구초빙교수 / cuchon2011@hanmail.net

의 협력 등 마을 공동체 중심의 자조적이고 주체적인 복지활동으로 지역의 경제, 문화, 공간을 활성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맥락 하에 본 연구는 지역복지실천의 거점인 사회복지관의 마을 만들기 사업의 실체에 대한 공동체적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사회복지관의 실무자들이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실천해 나가는 맥락과 행위 등을 탐색적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했다. 이에 부산지역의 사회복지관 5개소를 선정한 후 해당 기관에 소속되어 마을 만들기 사업을 다년간 추진해 온 실무자 총 12명을 대상으로 개별면접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급자 중심, 전문가주의에 대한 자성과 공동체에 대한 학습’, ‘자기성찰의 과정: 사람 중심, 주민자존감을 살리는 복지실천’, ‘주민의 생각·역량·자율성에 대한 신뢰와 주도성 구축’, ‘지역주민 간의 나눔을 동반한 거버넌스’,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를 위한 한계와 제안’의 5개 주제로 도출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토대로 부산의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학문적 실천적 논의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주제어: 공동체, 마을 만들기, 지역사회복지관, 실무자, 주민, 사회적 자본

I. 서론

1990년대 이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이라는 본질에 주목하면서 주민조직화에 노력을 기하고 있다. 지역 복지 또한 지자체의 재원능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그 재원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여관현, 2013; 양재혁·한영숙, 2012). 그러나 현재 지역 복지는 지역문제나 주민의 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고령화와 가족해체, 독거사, 빈곤의 가속화 등과 같은 사회 문제의 발생이 급증하지만 그에 대응하는 정부나 지자체의 대책은 아직

미비한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고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된다. 공동체 관련 논의들은 마을공동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의 성과, 평가, 활성화 등에 관한 것이다. 기존 논의를 종합해 보면, 결국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들의 주도적인 참여와 역량이 핵심으로 지적된다. 지역사회에 대한 주민들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켜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간 지역복지실천의 거점시설에 해당하는 사회복지관의 역할은 지역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에 치중한 나머지 주민과 지역조직의 참여, 공동체의 실현이라는 공적인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김진석·유동철, 2013). 이에 지역사회관은 사회서비스의 공급자, 전문가주의에서 벗어난 주민의 주체적 참여를 이끌어 내는 역할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즉, 지역사회복지는 공급자 중심의 사회복지 지형으로부터 벗어나 마을공동체 중심의 자조적이고 주체적인 복지활동을 지향해야 한다(신중진·신효진, 2008).

이러한 맥락을 볼 때 공동체 형성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주민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들의 주도성과 역량이 요구된다. 공동체 형성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강조되는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지역이 단순한 물리적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이며 기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다(김미현, 2013). 이에 지역사회복지관의 실무자들이 일반 주민들과 자생적 조직, 공공기관 등과 협업하여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실천적 경험과 지식구축으로부터 그 지평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마을 만들기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마을 만들기 사례분석 및 형성과정 연구(여관현, 2013; 송용훈 외, 2015; 이상훈 외, 2013; 전원식 외, 2009; 신중진·신효진, 2008), 마을 만들기 사업성과

및 평가 연구(양재혁 · 한영숙, 2012; 박수진 · 나주몽, 2015), 참여주체의 역할, 인식, 관계 연구(최희영 · 이희정, 2014; 전경호, 2013; 진재문, 2014; Ennis, Cretchen and Deborah, 2010), 마을사업 및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와 육성방안 연구(임경수, 2016; 이소영, 2006; 문석진, 2013; 신중진 · 신효진, 2010; Blunkett, 1983; Howe and Rev, 2001), 지역공동체 조직구축 및 협력, 실천방안 연구(Weil, 1996; Woodford, 2010) 등이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지역의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마을공동체의 지속적인 성장에 다양한 함의를 제공하는데 의의를 지닌다.

하지만 지역복지의 거점역할을 하는 사회복지관 중심으로 일반 주민과 지역조직과 신뢰적 관계를 맺으며 마을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맥락적 경험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는 한편 부산지역의 사회복지관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경험적 실재를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 질문은 부산의 사회복지관 실무자의 마을 만들기의 경험과 의미는 어떠한지? 마을지향 복지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활용된 전략과 변화는 무엇이며, 지역주민들 간의 상호작용은 어떠한지 등이다. 이렇게 도출된 연구결과는 마을 만들기를 통해 부산의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활성화를 위한 학문적 논의 및 사회적 과제와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 지식을 제공할 것이다.

Ⅱ. 문헌고찰

1. 공동체, 마을 만들기에 대한 이해

현대 사회는 취약한 공동체성에 기인한 많은 문제들이 발생된다. 빈

곤과 실업 위기뿐만 아니라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겪는 질병, 사고, 신체 기능상실, 장애발생 등 예기치 않는 많은 일들이 있다. 이러한 불행한 사건들은 누구에게 닥칠 수 있고 또 개인이 통제할 없는 위험요소들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공동체 조직을 오래전부터 형성해서 미래의 불행에 대비하고자 했다(황주익 외, 2016).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토대 위에 자리 잡고 있는 오늘날의 도시에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자 하는 운동과 실천이 이뤄지고 있는데 과연 가능할 것인가? 사회정책이 해결하고자 하는 각종 사회문제를 약화된 공동체로 해결 가능한 것인가?

부르디외는 불평등과 차별의 사회구조를 설명하는 장치로서 상이한 형태의 자본들의 작동 원리를 제시하는 가운데, 그 중의 하나로서 사회자본¹⁾을 언급한다. 그는 사회자본을 제도화된 관계의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보유함으로써 어떤 개인 혹은 집단이 갖게 되는 자원들의 총합이라고 한다(황주익 외, 2016).

최근 들어 공동체적 네트워크와 활동을 통해 사회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운동적 실천들이 다양한 형태로 진행된다. 지역공동체의 대안적 모델로써 예를 들면, 협동조합, 마을기업, 마을공동체, 의료생협 등을 통해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자본, 문화적 자본을 구축해 나가는 사례들이 목격되며 관련 보고서들이 생산되고 있다. 이러한 자생적 조직체를

1) 사회적 자본(Social Network)이란 개인을 비롯한 집단 간의 다양한 관계로 신뢰, 호혜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다. 오늘날 공동체 해체는 곧 사회적 자본의 상실이라고도 볼 수 있다. 공동체 회복을 위해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고 구축되어야 한다. 부르디외는 사회적 자본을 '제도화된 관계 즉, 집단의 구성원이 되면서 획득되는 실제적 또는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이라고 정의한다. 퍼트남은 사회자본을 "상호 간의 협력과 협동을 촉진시키는 연결망, 신뢰와 같은 사회조직의 특성, 즉 이는 사회가 소유하고 있는 자원으로 경제, 협력, 사회발전의 전제조건으로 규정하였다. 또, 콜만에 의하면 후기자본주의 사회의 개인의 이기주의와 기회주의적 속성을 제어하는 도덕과 규범으로 정의된다. 이 상에서 논의된 개념적 정의들을 종합해 보면 사회적 자본은 인간성 회복과 공동체 유지, 발전에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조건이다.

기반으로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이러한 참여를 통해 응집력과 자생력이 생성되는 것이다(Rubin, 2007). 지역공동체란 생활기반이 되는 지역 혹은 마을이라는 물리적 공간의 범주 안에서 구성원간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신뢰, 호혜성, 친밀성을 가지고 공유하면서 공동체적 가치를 추구하는 최소단위의 사회집단인 것이다(최승호, 2009; Rothman, 2001).

지자체 단체들을 중심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진행되며 공동체 형성, 실천주체, 참여, 주민협력 등에 관한 담론이 생산된다. 나라는 범위에서 시작되어 이웃으로 마을이라는 장소까지 확대되어 공동체를 구성해나가는 것이다. 도시재생으로 인한 공동체의 파괴, 관계망의 해체라는 문제를 마을 만들기를 통해 회복하고자 하는 운동으로 시작된 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들에게 공동체 가치와 인식을 심어주는 실천적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마을 만들기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다양한 의미로 해석을 더해가고 있다. 마을 만들기에서 마을은 주민의 삶이 영위되는 일정 영역의 공간, 공동체를 의미하며 이러한 마을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므로 그 활동의 주체성이 요구된다(황주익 외, 2016). 주민참여 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환경을 개선하고 살고 싶은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지속적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게 행하는 각종 노력과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전원식 외, 2009).

마을 만들기는 도시개발 과정에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저항운동으로 주민뿐만 아니라 풀뿌리 단체, 복지 운동, 마을기업, 시민단체 등 폭넓은 네트워크를 맺는 것을 중요시 한다. 각 영역을 넘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은 자립기반이 되며 지속적인 삶의 관계망으로 발

전되기 때문이다(임경수, 2016; 이소영, 2006).

2. 부산의 마을 만들기 사업의 맥락

마을 만들기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확대되면서 하나의 사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에는 국토교통부는 물론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대부분의 중앙부처 주관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이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2012년 ‘복지마을’ 연구용역과제를 발주하여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대안을 모색하였다. 이미 2007년 국토해양부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마을 만들기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이어 서울광역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등 광역지자체와 기초 지자체도 마을 만들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서울광역시는 마을 만들기 공동체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2012년부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주축으로 다양한 마을공동체 육성 전략을 추진해 왔다.

이 같이 마을 공동체 회복과 환경개선, 도시재생이란 담론이 주를 이루면서 부산광역시 역시 낙후된 지역의 주거 및 주변 환경개선에 대한 계획수립이 제기되었다. 부산시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행복마을만들기’ 사업 등을 통해 공동체를 회복하고 낙후된 지역의 재생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의 대표적인 사례로 부산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서민의 애환과 역사가 녹아 있는 산복도로 지역을 복원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였다(문건주, 2015). 일명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로 산복도로 일대에 분포된 폐가나 공터를 활용한 문화시설, 생활편익시설 등을 설치하여 주민의 문화공간이나 일자리 공간을 만들어 가는 사업으로 변화시켰다.

이 사업은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마을 만들기 사

업으로 산복도로의 역사·문화적 가치 복원 및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산복도로 르네상스는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주도적인 참여로 지역의 공간, 문화, 경제를 활성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고자 했다(문건주, 2015).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대상지는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동구의 안창마을 등을 비롯한 영주, 초량, 좌천, 수정, 아미, 감천, 대산, 범일, 범천, 개금구역이다. 이 지역의 주요사업들은 신리협동조합, 죽림공동체, 우리동네 녹색장터, 까꼬막카페, 마실 한바쿠 등이다. 이어 2011년에 시행된 ‘행복마을만들기’ 사업 또한 단순히 주거환경정비가 아닌 ‘공간 및 생활복지차원’의 재생사업이다(양재혁·한영숙, 2013). 사업초기에 마을별 추진협의회, 해당구청 등이 다양한 사업목표와 내용을 제안하였다. 행복마을만들기는 전문가로 구성된 중간조직의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단일사업이 아닌 마을의 종합재생을 통해 마을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였다(양재혁·한영숙, 2013).

행복마을 대상지는 금정구의 머드레마을, 서구의 닥밭골마을, 동구의 오색빛깔마을, 진구의 본동마을, 남구의 참살이마을, 해운대구의 삼어마을, 북구의 공창마을 등 7개구의 마을이다. 범천동의 호천 행복마을 만들기는 주민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건강마을 캠페인, 마을재생(마을공동체 역량강화), 호천생활문화센터, 마을 카페 ‘끄티’, 호천문화플랫폼 운영, 호천마을 자율소방대, 호계천 및 마을환경 정화활동, 만리산 주거지 주차장 운영 등으로 마을의 자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앞서 언급된 ‘행복마을만들기’, ‘다복동 행복한 마을만들기’는 행정 주도, 관 주도 마을 만들기 사업의 특성을 지니지만, 실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지는 주민참여형 마을 만들기 사업을 궁극적으로 지향한다. 이에 부응하는 주민참여형의 대표적인 사례로 매축지 마을이 있다. 매축지 마을은 2015년부터 시민이 운영하는 복지법인 ‘우리마을’과

‘BNK 금융그룹’의 협력을 통해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례는 일반적인 마을 만들기와 달리 시민들이 운영주체인 복지법인 주도의 사업으로 매축지 마을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는 특징을 지닌다(송호성, 2016). 매축지 마을 만들기에는 독특하게 마을관리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을 형성하여 주민공동체를 결속시킨다. 마을관리사무소는 일명 ‘마실’로 지칭되며 지역복지관, 동사무소, 보건소 등과 결합하여 주민생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마을관리사무소에서는 주민간담회, 국수잔치, 영화감상, 건강검진, 영정사진 찍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주민주도로 진행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산광역시는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과 공동체 회복,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장기적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관련 행정조직은 부산시청, 해당 구청,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부산도시재생센터 등이며, 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분야의 전문가와 행정기관, 활동가를 대상으로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 주민참여의 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그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다.

3. 마을만들기 관련 선행연구검토

지금까지 마을 만들기 관련 논의들은 지역의 공동체 활성을 위한 차원에서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그간의 선행연구들의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을 만들기의 참여주체의 역할, 인식, 만족도에 대한 연구이다. 최희영·이희정(2014)은 서울시 성대골마을과 삼각산 재미난 마을을 대상으로 지역 공동체 활동 안에서 여성의 주체적인 역할을 분석하였다. 전경호(2013)은 귀농인들에 의해서 변화되는 마을의 경관, 조직

구성 및 공동체 사업의 추진과정을 분석하였다. 또, 마을 활동가, 지역 리더의 역할에 주목한 연구가 있다(박광범, 2012). 진재문(2014)은 부산 지역 5개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역주민들과 경남의 동피랑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자치단체의 주민참여활성화 노력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차이가 마을 만들기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에 차이를 가져오는가를 분석하였다. 결과, 자치단체의 주민참여 활성화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따라 생활불편을 제외한 삶의 질의 평가에 차이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신중진·신효진(2008)은 서울시 금천구 독산3동 마을만들기에 전문가로 참여하여 각 사업단계 또는 프로그램에서 주민의 역할이 변함에 따라 다른 참여주체와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다뤘다.

둘째, 마을만들기 사업성과 및 평가에 관한 연구이다. 양재혁·한영숙(2012)은 금정산성마을의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참여주체간의 파트너십과정과 운영체계, 파트너십이 가치 등에 대한 성과와 교훈을 평가하였다. 문석진(2013)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있어 거버넌스의 특성분석과 거버넌스의 주요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참여주체들의 자체평가를 해 봄으로써 향후 안정적인 거버넌스 정착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박수진·나주몽(2015)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성과로서 신뢰, 네트워크, 호혜적 규범 등과 같은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는지 검증하였다. 그 결과,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수준이 높으면 사업 및 생활에 대한 주민만족도 역시 높아지며, 사회적 자본의 형성정도도 함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수준과 사업 및 삶의 만족도를 함께 제고해야 사회적 자본의 수준이 높아짐을 밝히고 있다.

셋째, 마을만들기 사례분석 및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이다. 전원식 외(2009)은 주민 또는 주민조직이 주축이 되어 진행한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분류기준을 재정립하여 주민 참여 마을만들기 사업분류기준을 제시하고 사업추진의 성공적인 추진방안을 검토하였다. 지역사회복지실천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에 관한 사례연구이다. 신중진·신효진(2008)은 행정기관의 지원사업을 통해 진행된 일반거주지에서 주민차명 마을만들기 사례분석을 통해 계획과정을 정리, 관련주체 및 활동내용을 중심으로 계획과정을 분석하였다. 여관현(2013)은 성북구 장수마을을 사례로 마을 만들기에서 공동체 성장과정을 살펴본 결과, 장수마을에서 진행되는 마을 만들기가 다양한 프로그램은 마을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있었다. 이로부터 마을 만들기에서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송용훈 외(2015)은 성미산 마을을 중심으로 커뮤니티 및 협동조합 등 활동을 하고 있는 커뮤니티 구성원 53명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이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주민참여 동기 중 이타적 동기가 적극적인 커뮤니티 참여로 이어지고, 결국 구성원 간의 신뢰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마을사업의 활성화와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임경수(2012)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마을만들기의 관한 이론적 실증적 검토를 하고 이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그 정책적 함의로써는 우선, 마을단위에서 WHO의 세부지침을 적용할 때는 대상마을 특성에 맞도록 조정하되 도시 전체의 고령친화도시 조성목표에 부합되도록 한다.

다음은 고령화친화적 마을만들기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주민의 역량강화의 필요 또, 고령친화적 마을만들기에 참여하는 정부, 기업, 주민, 시민단체간의 거버넌스 구축이 선결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소영(2006)은 마을만들기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시민단체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는 관점에서 서울시 북촌지역사례로 마을만들기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시민단체들은 해당 지역의 문제를 이슈화하여

개인공간에만 집착하던 개인들로 하여금 공유공간에 관심을 갖게 하였다. 또한 이웃과 더불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학습하고 체험하게 하며, 다양한 이해집단과 관련 단체 간의 이견을 조율해 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문석진(2013)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제시했다. 자치단체는 사람의 지원을 통해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 스스로 모든 일련의 프로세스를 처리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했다.

Ⅲ. 연구방법

1. 질적 연구방법

질적 연구방법은 현장에서 경험하는 이슈나 문제들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주제나 추상적 개념을 형성할 기회를 갖는다. 이러한 질적 연구는 참여자들이 문제나 이슈에 부여하는 의미를 이해하는데 초점을 둔다. 이 연구과정에서는 연구자들이 주제 체계를 구축할 때까지 주제와 기초자료 사이를 오가며 수정하는 작업이 지속된다. 연구자의 경험을 통해 정리된 생각이나 이념, 개념으로서 현장연구를 하는데 틀을 제공한다(김유진, 2016). 연구자의 해석은 그들 자신의 배경과 역사, 맥락, 선형적 이해와 분리될 수 있다. 선행연구와 연구결과를 지속적으로 비교해 가면서 마을 만들기 사업이란 현상에 대한 통찰력을 발전시킨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질적 연구는 공동체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개념 형성에 기여할 것이다. 이에 부산의 사회복지관의 실무자들이 마을공동

체 만들기를 실천해 나가는 행위와 맥락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부터 출발한 본 연구는 공동체적 개념을 현장에 적용하여 이들의 마을 만들기의 경험이 어떠한지, 또 지역주민간의 관계, 경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탐색적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참여자 선정

본 연구의 목적은 부산의 사회복지관이 주도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의 맥락적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탐색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 수행을 위해 사회복지관 중 현재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복지관 내부적으로 공동체의 중심, 주민 중심의 복지를 지향하고 있는 부산지역의 사회복지관 5개소를 선정하였다. 다음은 해당 복지관에 소속되어 주민조직화 및 역량강화 관련 사업에 실천경험이 있으면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현재 담당하고 있는 관리자 및 사회복지사를 연구참여자로 총 12명을 선정하였다. 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보면 우선, 성별은 남 7명, 여 5명이며, 연령은 50대 1명, 40대 4명, 30대 4명, 20대 3명으로 구성된다. 복지관 내 직급은 과장급 이상 4명, 팀장 4명, 사회복지사 4명이며, 실무경력은 2~3년 3명, 4년 1명, 8년 3명, 9년 1명, 10년 이상은 4명으로 분포된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인터뷰 기간은 우선, 2016년 2월부터 5월까지 복지관 실무자 9명을 대상으로 개별 심층면접이 실시되었으며 이후 2018년 3월 실무자 3명에 대한 추가면접이 이뤄졌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관 실무자들의 관점에서 구성해 내는 마을 만들기 사업경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도모하고

자 개별심층면접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로부터 실무자들이 구성해 내는 각 사례의 다층적 요소와 맥락, 고유한 특성 등을 탐색코자 했다. 복지관 실무자들의 경험적 자료를 충실히 수집하고자 우선, 마을공동체, 지역공동체 관련 문헌고찰 및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1차 개발하였다. 1차 개발된 질문지는 실무자 2명에 대한 사전 인터뷰를 통해 수정, 보완하여 최종질문지로 개발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부산의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실무자 12명에 대한 개별 심층면접이 실시되었다. 면접질문은 “부산지역의 사회복지관이 주도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경험은 어떠한가”, “마을공동체 중심의 복지란 무엇인가?”,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를 위한 촉진요인과 방해요인은 무엇인가 등”으로 구성된 반구조화 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인터뷰 시간은 대략 1시간에서 1시간 30분가량 소요되었다. 본 면접은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면담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됨을 약속드리며 연구참여자의 동의서에 동의를 받은 후 시작하였다. 연구참여자의 표현을 생생하게 빠짐없이 기록하기 위해 연구참여자들의 동의를 얻어 녹음기로 녹취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면담내용은 연구의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음을 약속하였다. 인터뷰 장소는 연구참여자들이 편안하게 인터뷰할 수 있거나 또, 원하는 장소로 소속되어 있는 각 복지관의 교육실이나 세미나실에서 진행되었다.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전체 필사하여 녹취록을 만들었다. 자료분석은 필사한 자료를 여러 번 읽으면서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을 코딩하는 등 지속적인 비교분석(Strauss and Corbin, 1990)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공통된 의미를 지닌 개념들끼리 묶어 범주화하고 이를 주제로 추상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4. 연구윤리와 엄격성 확보

질적 연구는 개인적인 경험의 노출로 연구참여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삶에 불편함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연구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가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면담 전에 이들에게 연구목적과 방법, 연구 참여에 대한 참여자의 자발성 및 연구참여 중단권, 비밀유지를 위한 익명처리, 면담내용의 녹음처리 등에 대해 설명하고 문서화된 연구참여자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다음은 본 연구자는 질적 연구의 엄격성을 확보하기 위해 Lincoln과 Guba(1985)의 사실적 가치(true value), 적용성(application), 일관성(consistency), 중립성(neutrality)의 네 가지 측면을 따랐다. 일반적으로 질적 연구방법과 양적 연구방법의 평가는 다르다. 본 연구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Lincoln과 Guba(1985)가 개발하여 제시한 네 가지 기준인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 중립성을 따랐다.

첫째, 사실적 가치의 확보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는 참여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진솔하게 말할 수 있도록 신뢰 관계형성을 위해 맥락적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인터뷰가 끝난 뒤에도 사실에 관한 확인 작업을 하거나 미진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화나 메일로 다시 질문하는 방식을 취했다. 둘째, 적용성 확보이다. 이를 위해 내용이 포화될 때까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의 지역의 현장경험에 대한 기록지 등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분석했다. 셋째, 일관성 확보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들이 각 단계에 나온 분석결과에 대한 일관된 결과를 도출하고자 상호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간주관성 확보에 노력하였다. 아울러 연구참여자 2명과 지역복지 전문가 1명에게 본 연구결과의 분석내용이 연구주제에 부합되고 일관성이 어느 정도로 확보되는지 조언을 요청하여 그 내용을 본 연구결과에 반영하였다. 넷째, 본 연구자의 마을 만들

기사업에 대한 선이해가 어떠한지를 점검해 보았다.

본 연구자는 사회복지관 중심의 마을 만들기 사업은 기존의 주민조직화 사업이나 환경정비 활동과 유사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선이해를 스스로 확인하고 이를 최대한 배제하면서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IV. 연구결과

사회복지관 중심의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실무자의 경험과 의미를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지역사회복지관 중심의 마을 만들기 사업의 경험분석

마을 만들기 사업경험의 주제	마을 만들시 사업경험의 세부내용
공급자, 전문가주의에 대한 자성과 공동체에 대한 학습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에 대한 한계인식. 기존 복지관의 철학과 가치에 대한 도전. 주민들의 삶을 공유함. 마을중심의 복지에 대한 배움.
자기성찰의 과정: 사람 중심, 주민자존감을 살리는 복지 실천	실무자들의 자기점검. 있는 그대로의 주민들을 존중함. 주민의 열등감과 피해의식에 대한 회복. 주민자존감을 살림.
주민의 '생각·역량·자율성'에 대한 신뢰와 주도성 구축	주민역량에 대한 믿음. 자율적 권한을 부여함. 주민참여와 주도성을 이끌어 냄. 주민들과 일상에서 소통함.
지역주민 간의 나눔을 동반한 거버넌스	주민 소모임의 인큐베이팅. 이웃과의 관계망 형성. 자조적 돌봄 활동.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협업. 공동체 인식의 함양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를 위한 한계와 제안	장기적인 지원과 관심의 필요성. 마을 활동가, 전담인력의 배치. 주민의 역량강화와 사람 중심의 가치실현. 공동체의 경제적 자립방안의 강구.

1. 공급자, 전문가주의에 대한 자성과 공동체에 대한 학습

연구참여자들은 지역사회복지관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고자 했다. 사회복지관은 정부를 대신해 서비스를 전달하는 공급자의 위치에서 벗어나 그 지역의 문제와 주민의 필요를 파악하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즉, 사회복지관이 지역현장으로 직접 들어가 주민들의 삶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가시적인 사업성과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주민참여와 역량을 이끌어내는 역할에 보다 집중해야 된다는 지적이다. *“복지관이 사업의 성과 자체를 복지관이 갖는 게 아니라 주민들에게 넘겨야 된다는 생각, 그러한 철학과 가치로 변화되어야 하죠(참여자7)”*.

그러나 사업초기에 참여자들은 사회복지관이 서비스 공급자의 위치에서 벗어나 주민들과 함께 일하고, 또 주민들 스스로가 지역사회를 변화시킨다는 기조에 대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회의적이었다. *“주민하고 함께하는 것 주민들이 지역사회를 바꾸는 것, 이것은 완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 라는 생각도.. (참여자12)*.

반면, 관계해체, 독거사 급증 등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서비스의 한계가 드러나는 현실에서 참여자들은 주민 스스로가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전달체계가 필요하다는 공감된 인식은 갖고 있었다. *“우리가 계속 서비스 자원을 제공하지 말고 지역주민이 스스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시작해 봐야 할 시점이죠 참여자9)”*. 이러한 참여자들은 지역문제를 주민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곧 자생력을 갖춘 주민모임을 먼저, 인큐베이팅 하는 역할을 해내고자 했다. *“저희는 주민 자생단체를 인큐베이팅해서 지역사회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참여자3)*.

참여자들은 사회복지관의 역할은 주민들이 풀뿌리조직체를 만들고

스스로 성장, 발전하는 자생력을 갖도록 원조와 지지를 제공하는 일이라고 한다. 예컨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복지관의 도서관을 운영하도록 하며, 또 마을에 비어있는 공간도 주민들에게 내줘 건강체조, 다도, 요가 등 주민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기존에 지역사회에 있는 자생 단체들이 잘 성장할 수 있게끔 공간, 행정을 제공해야죠. 할머니들이 이런 공간이 생겨서 차라고 마실 수 있고 웃음치료 이런 것도 함께 받을 수 있고 서로 소통해서 대개 좋아하세요(참여자1)

마을 만들기 사업은 사회복지관의 기존 철학이나 역할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을 요구하는 도전적인 사업이었다. 하지만 참여자들은 사업초기 마을중심의 복지가 과연 무엇이며, 또,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기존의 주민조직화 사업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공동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관한 고민과 부담이 컸다. “처음에 마을지향이라는 것이 기존 복지관 사업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또 어떻게 사업에 적용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파악하는 게 어렵더라구요(참여자12)”.

이에 참여자들은 스스로의 역량을 높이고자 마을 중심의 복지에 관해 학습하며 배워나갔다. 구체적으로 복지관 내 교육 팀을 구성하고 내부강사나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마을 중심의 복지실현, 공동체 회복 등에 관한 지식과 실천기술을 배워나갔다. 또,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거나 워크숍을 통해 향후 계획이나 비전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사업진행 과정에서 애로점이나 갈등이 생기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협력해 나갔다. “외부강사를 통한 직원교육, 내부강사를 통한 교육, 또 전문가를 초청해서 하는 마을공동체, 공동체에 관한 교육받고요 또 책을 통해 배우는 것들이 있어요(참여자6)”.

참여자들의 경험에 의하면 마을공동체 중심의 복지란 주민들 스스로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으로 환경, 결

식아동의 급식, 돌봄 등 지역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코자 하는 주민 중심의 실천운동이었다.

2. 자기성찰의 과정: 사람 중심, 주민자존감을 살리는 복지실천

마을 만들기 사업은 참여자들에게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성찰의 과정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진정한 마을 만들기는 자신들의 삶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사업과정은 본인에 대한 성찰의 자리가 되었고.(참여자5)”*. 연구참여자들은 사람 중심, 주민 중심의 복지를 실천하기 위해 그들의 생각과 행동은 과연 어떠한지 스스로를 점검해보는 기회를 가졌다. 그들 스스로도 사람 중심의 복지에 대한 철학과 가치를 갖고 있는지, 또 주민들에 대한 자신들의 인식과 태도는 어떠한지 등 그에 관한 사항들을 점검해보는 작업이 전제되어야 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사회복지사들이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이 필요해요 사람 중심의 복지를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 노력 이런 거 함 점검해보는 거, 그 동안 주민들 안에서 깨닫는 변화가 고무적이었죠(참여자4)*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있는 그대로의 주민들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주민들은 사회복지사나 전문가가 교육시켜야 할 피동적인 객체가 아닌 그들 삶의 주체적 존재라는 것이다. 따라서 실무자의 역할은 주민의 생각, 그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면서 주민들 간에 상호 교류의 장을 마련해 주며 그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주민들 간의 신뢰관계가 형성되고 서로를 돌보는 자생력이 싹튼다는 것이었다. *“주민에게 뭔가 교육을 시킨다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에요 이미 주민이 마을에서 다 잘 지내고 있어요 저희는 주민들이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고 이걸 통해 관심을 갖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서로 돕는 그런 것이 자생력을 키우는 일이죠(참*

여자10).

부산지역의 마을에는 영구임대아파트가 많으며 그곳에 사는 주민들 대부분이 저소득층이다. 이들 주민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온 계층으로, 열등감이나 피해의식이 많아 수동적이라는 것이었다. 참여자들은 주민들과 함께 공동체 만들기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열등감과 위축된 자아를 회복하는 것 즉, 주민들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했다. “마을을 보면 이분들이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많이 소외되어 오셔서 동기부여.. 뭐 이런 것이 상당히 약하고..”. “주민들의 자존감이 회복되어야 해요. 주민 스스로 수동적이고 내가 뭐 할 수 있겠노. 그러면 일을 할 수 없죠.”(참여자1). 참여자들은 주민들이 마을의 일을 마냥 봉사개념으로 한다면 곧 한계에 부딪침으로 주민들의 자존감 회복과 의식변화가 선행되어야 이들의 능동적이고 지속적인 참여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참여자들은 마을 지향 복지,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주민의 자존감을 살리는 복지실천’이라고 했다.

3. 주민의 ‘생각-역량-자율성’에 대한 신뢰와 주도성 구축

연구참여자들은 주민들의 생각을 존중하고 그들의 역량을 인정하는 믿음으로부터 주민들의 변화된 모습을 경험했다. 먼저, 참여자들은 단순히 복지관에서 앉아서 그들이 생각하는 지역문제와 주민들이 실제 겪고 있는 문제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면서 참여자들은 마을 주민들과 함께 밥도 먹고 술도 같이 하는 등 주민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 들어가 소통하려고 애를 썼다. “우리가 단순히 복지관 사무실에 앉아서 생각하는 지역의 문제와 실제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역의 문제는 다르구나 라는 게 있어요(참여자2)”.

참여자들은 이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을 더 자주 만나고 또, 함께 밥도 먹고, 차를 마시는 일이 많아졌다. 그 가운데 참여자들은 예전에 미처 몰랐던 주민들의 생각과 삶을 알게 되면서 마을공동체라는 실체에 조금 더 친숙해져 갔다. 그러면서 참여자들과 주민들 간에 상호 신뢰를 쌓아 갔다. “주민들하고 동등한 개념으로 가려고하고. 지역주민들을 내가 믿는 만큼 이 사람들은 쫓아온다. 계속 믿음을 심어주고 참여자9)”.

이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주민들을 복지수혜자가 아니라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료, 파트너라고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주민모임이나 설명회 등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에 주목하며 함께 일하는 동료로서 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했다. “활동가와 파트너로 함께 일을 해나가는 것이죠 저희가 주민설명회 및 토론회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있으면 함께 하고요”(참여자4). 참여자들은 복지관이 마을 내에 위치해 있는 것이 아니라 접근성이 떨어지는 마을 외부에 있어 주민들과 상호 교류하고 마을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 또한 했다. “복지관은 마을 안에 사무실 있는 것이 아니라서 사업을 하는데 힘든 점, 제한점이 많아요 또 주민들과 교류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참여자3)”.

한편, 참여자들은 이 사업으로 짧은 기간 내에 주민들의 변화는 어렵지만 점차적으로 공동체의 면모를 보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들은 주민을 신뢰하고 그들과 함께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주민역량은 성장된다고 믿었다. “변화하는데 힘듦은 있지만. 현재는 저희 직원들이 주민의 힘을 신뢰하고 그러면 어떤 주민과 함께 더불어 사업을 할 때 역량강화는 계속 돼야 될 거 같아요 참여자6). 연구참여자들은 주민들 스스로 마을사업을 추진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럼에도 그들에게 자율적 권한을 부여하고 주도적으로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복지관을 활용하며, 그들 스스로 마을행사나 프로그램을 준비해 나갔다. 그 일례로 마을행사 개최도 이전과 달리 복지관 중심에서 주민주도 방식으로 변화되어 갔다. 예를 들면, 지역 내의 쌀 모으기, 무대공연, 부스참여 등 마을축제나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주민의 주도적 참여가 두드러졌다. 마을 행사는 노인을 비롯한 아이들, 청년, 주부 등 다양한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로 되어 갔다. “주민 주도로 바뀌었고, 홍보나 쌀 모으기, 무대공연, 주민들이 만들어가고, 지역사회의 쌀이나 고기, 김치 등을 가지고 이번 행사에 음식을 만드는데 참여하실 수 있고..(참여자 10).” 이렇듯 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태도는 보다 주도적이고 자율적인 모습이었다. 주민들은 복지관 서비스를 단순히 제공받기만 하는 복지수혜자가 아니라 점점 자신들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역량을 발휘해 나가는 주체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또한 주민단체도 주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활동해 나갔다. 실무자들이 주민의사나 선택을 대신해 왔던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 주민들에게 자율권을 인정하며 주민의 주도적 참여를 지원했다. 연구참여자들은 공동체 내의 자생적 주민조직체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자립해서 나름의 역할을 해내야 함을 강조했다. “공동체에 대한 훈련을 통해서 향후에 어느 정도 스스로 성장할 수 있다면 자립해서 지역사회에 나가 또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참여자 8).”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회복지관이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인적 물리적 지원은 상당히 부족한 형편이었다.

4. 지역주민 간의 나눔을 동반한 거버넌스

주민들은 자조모임을 통해 노인과 아동 등 이웃에 대한 돌봄 제공과

생태 살리기, 마을 가꾸기 등을 실천하면서 공동체적 나눔의 관계망을 형성해 가는 모습을 보였다. 우선, 연구참여자들은 주민들이 원하는 소모임을 만들고 주민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직화해 나갔다. 예를 들면, 텃밭 가꾸기나 공동육아, 바자회, 마을지킴이 등 주민모임을 인큐베이팅 해 나갔으며 그 가운데 관계도 살리고 마을환경정비, 생태도 살려 나갔다. 이 과정에 주민리더는 주민소모임을 이끌어가는 동력자로서 주민 간의 단결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했다. “주민들이 원하는 소모임을 만들어드린다면, 원하는 활동을 지원해드리죠 참여자9)”, “텃밭 가꾸기 모임이 만들어졌고 주민과의 관계도 살리고 환경도 살리는 의미에서 마을 청소도 하시고요 참여자1).” 마을에는 주민들 자체적으로 국수잔치, 김장나누기 등 행사가 진행되었다. “주민분들에게 맡기는 사업도 있고 주민이 주축이 되어, 후원금을 받고 사업을 해요”(참여자2).

연구참여자들은 최근 고독사의 문제가 심각하게 급증하는 상황에서 주민 공동체의 회복이 그 대안이라고 여겼다. 한 동네에 살아도 전혀 몰랐던 이웃들 간의 왕래와 교류로 인해 주민들 간의 상호 돌봄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1인 가구,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인데 지역주민들이 네트워킹을 형성하여, 서로 이웃을 돌보며 공동체처럼 사는 구조를 만들어 드리려는 거죠”(참여자7). 또한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에 따르면 공동육아, 사랑공동체, 마을지킴이, 텃밭 가꾸기 등 주민소모임이 관계망을 형성, 확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참여로부터 주민들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아동과 노인 등 이웃들을 함께 돌봐야 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어머님들하고 여러 활동을 해요 그런데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해요. 담당자 부담도 적어지고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참여자6)”. “그러니까 급식을 굽고 있는 아이들에게 밥을 먹여주고 싶다고. 우리가 없으면 굽을 거 아니냐 그러시고.(참여자3).”

이처럼 주민들은 소모임에 참여하면서부터 마을을 자신들이 가꾸고 돌보아야 하는 공동체로 인식했다. 주민들은 각자의 일로 바쁘지만 지역의 어른신이나 어려운 이웃들을 돌봤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이전에 갖지 못했던 ‘우리’, ‘공동체’라는 인식과 개념을 갖게 되었다. “지역주민들 사이에 내가 돌봐드려야 한다는 것, 시간이 안 되더라도 가서 도와드려야 된다 라는 생각들.. 또 도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어른신 이니까 함께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세요(참여자5)”.

한편, 마을에는 대부분 노인층이 주를 이루며 주민리더 또한 60대로 이뤄졌다. 젊은 사람들은 취업이나 학업 등의 이유로 마을을 떠나 있거나 마을 일에 관여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그나마 40대 주부들이 있는 마을의 경우 주부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두드러졌다. “마을리더가 62세 초 연세가 있지만 마을에서 젊은 층에 속해요 마을에서 만물박사처럼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도와주고, 40대 주부들이 그런 적극적으로 참여 하고요 리더가 다양하지는 않죠 20, 30대는 경제활동을 해야 하니깐. 마을에 없고.”(참여자8).

그러면서 참여자들은 마을공동체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만들어 나갔다. 마을의 주민과 지역조직체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내고자 했다. 이에 참여자들은 지역의 풀뿌리조직과 주민 센터, 복지단체, 시민사회 등 다양한 범위와 영역에 걸친 협업하며 이를 토대로 상호 신뢰를 축적해 나갔다. “생협이나 협동조합 그런 단체하고도 관계를 하고요(참여자 11)”. 그러나 일부 실무자들은 타 단체들과 함께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꺼려하였다. 직원들 중 누군가는 이 사업으로 인해 파생되는 일들을 본인의 업무 외에 추가적으로 맡아야하기 때문이었다. “복지관은 타 기관이나 단체랑 네트워크해서 사업을 같이 하게 되면 자기 일이 많아진다고, 기존 복지관 프로그램에다가 이런 사업으로 인해 직원들 중 누군가가 일을 더 안는 것이라

서 잘 안하려고 해요(참여자2)”

5.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를 위한 한계와 제안

연구참여자들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적 차원에서 장기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책적 밀받침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길게 내다보고 가야죠, 이런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싹 가버리는 게 아니라 장기 플랜으로 보고 정책적으로 좀 끌어줘야죠(참여자3).”

또한 복지관의 기존 업무 외에 마을 만들기 사업을 전담하는 인력이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활동가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 사업은 실제 주민들을 만나서 현장에서 해나가야 할 일들이지만 현실적으로 실무자들이 그러기에는 제반 여건이 어려웠다. 더군다나 복지관은 1년 단위로 자체로 받는 평가 때문에 실무자들은 서류작업에 매달리는 형편이었다. 이들은 마을 만들기 사업의 성과가 단기간에 확연히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서 평가과정에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 그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복지관 예산 자체도 역시 1년 단위로 사업을 하게 되고 또 지자체 예산을 받다보니 관련 서류작업들이 넘 많아서, 실제 주민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거의 힘들죠 활동하는데 한계가 있어요”(참여자12).

이러한 사정으로 실무자들은 서류작업을 사업의 성과물로 남겨 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마을에서 답을 찾도록. 마을에서 가서 주민분들을 만나서. 계속 일을 해야 하는데. 그런 시간적 인적 자원이 없으니 계속 서류에만 그런 증거들을 남겨 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 문제죠(참여자9)”. 최근엔 사회복지사를 마을 만들기 사업을 전담하는 마을

활동가로 배치하는 복지관이 점차 늘고 있었다. 몇 년 전과 비교하여 이 사업에 대한 복지관 내부의 인식이 보다 향상된 모습이였다. “요즘은 활동가의 목소기를 내면서. 다복동 사업을 하면서 복지관에서 활동가로 한명 더 채용해서. 복지관 예산을 내려주고 시간을 뒀서 사람에게 투자라는 모습이 약간 있기도 해요(참여자1).

또한 참여자들은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일할 주민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현실적으로 마을에 일할 주민들이 없다는 것이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해요 주민들이 해야되요 그런데 일할 주민들이 없어요(참여자4).” 마을의 일이 곧 나의 일이며, 내 이웃이 잘 살도록 하는 것이라는 의식에 변화가 주민들에게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일할 수 있는 주민들이 있어야 하죠 마을 일이 내 일이고. 그런 의식변화가 있어야 해요, 그분들이 마을 일을 봉사하는 마음으로만 하면 오래 지속하지 못해요. 나의 일이라고 생각해요(참여자7)”. 이렇게 주민들이 역량강화 되고, 또 일할 주민들을 체계적으로 키워나가야 마을공동체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주민들이 역량강화 되면서 또 다른 마을의 주민들을 키우고 이렇게 공동체가 지속될 수 있죠 일하는 몇 몇 사람만으로 지속적인 공동체를 꾸려가지 불가능하죠(참여자10)”

연구참여자들은 마을에 일할 사람은 없는데 건물만 짓는 그런 보여주기 식의 마을 만들기 사업의 행태를 지적했다. “마을 만들기가 일할 사람을 만들어야 하는데 사람은 없고 건물도 짓는. 일은 사람이 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보여주기식 사업을 하다보니.(참여자8)”. 지자체는 단순히 마을의 환경정비, 건물을 짓는 데만 집중한 나머지, 결국 이를 운영할 예산과 사람이 없어, 지어 놓은 마을의 시설들은 애물단지가 된다는 것이었다. 더군다나 이러한 건물들도 접근성이 현저히 낮아, 결국 수익성이나 효율성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건물을 지

어 놓고 예산지원은 안되고 장애인들은 접근할 수 없는 꼭대기에 도서관을 만들어 놓고,, 기본적인 운영비가 나가는데. 예산은 없고. 애물단지라 되어있죠”(참여자3).

이처럼 참여자들은 사람 중심의 마을 만들기가 아니라 주거개선 및 환경정비 등 물리적 재생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복지관에서도 지자체의 관점이 도시재생이 아니라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하고 또 장기적인 투자가 있어야 하고. 시간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죠”(참여자5). 참여자들은 이 사업이 단기적인 성과를 노리는 도시재생차원에서 벗어나 일할 사람들을 만들어 내고,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공동체를 회복하고 이뤄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지자체마다 주민들의 필요와 의사와는 무관하게 유행하는 사업을 마냥 모방하는 획일적인 행정을 지적했다. “마을의 특성이나 주민의 의사는 관계없이. 이 마을에서 이런 사업하니깐 잘된다고 하더라 해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래서 그냥 따라 하기식 사업이 태반이죠(참여자12)”

마지막으로 참여자들은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를 위해 공동체의 경제적 자립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주민들이 마을의 일에 참여하는 동시에 경제적 수입이 창출되어야 공동체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주민생계 따로 마을의 일 따로 하는 것은 곧 마을 만들기의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그분이 마을 일을 하면서 생계가 해결되어야 해요. 자기 생계 따로 마을 일 따로 이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일하기 어려워요”(참여자6).

이에 연구참여자들은 주민들의 경제적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언급했다. 이미 부산의 여러 지역에서도 한과나 반찬 만들기, 콩나물 키우기, 떡 만들기, 식당 등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정부지원이 끊긴 이후 판로의 어려움 때문에 대부분이

문을 닫거나 폐업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 하면서 경제적 수입이 있어야 해요. 마을 만들기 하면서 협동조합을 많이 만들어요. 근데 지원이 끊겨 돈이 없다 보니 다들 탈퇴하시고요” (참여자1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부산의 사회복지관 실무자의 마을 만들기 사업경험과 의미를 이해하고자 했다. 그 결과 ‘공급자 중심, 전문가주의에 대한 자성과 공동체에 대한 학습’, ‘자기성찰의 과정: 사람 중심, 주민자존감을 살리는 복지실천’, ‘주민의 생각-역량-자율성에 대한 신뢰와 주도성 구축’, ‘지역주민 간의 나눔을 동반한 거버넌스’,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를 위한 한계와 제안’으로 5개의 주제로 정리되었다. 이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논의점을 시사해준다.

먼저, 실무자들의 경험분석으로부터 신뢰적 관계망의 회복, 참여, 주도성, 관심, 협업 등 사회적 자본과 공동체 형성의 주요한 개념들이 발견되었다. 이들 개념은 정부주도의 공공서비스로부터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참여와 협업, 연대를 통해 아래로부터 형성되는 지식이다. 또한 본 연구결과로부터 주민 중심의 거버넌스, 전달체계, 관계망 등이 마을지향 복지의 구성요소인 것으로 확인된다(송용훈, 2015; 황주익 외, 2016). 이 개념들은 기존 복지국가의 논의에서 공급자 중심, 시장경제 중심복지의 대안인 사회적 경제나 사회적 자본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마을공동체를 통해 구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지역주민들이 텃밭 가꾸기, 마을 청소, 공동육아, 김장나누기, 축제, 바자회 등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우리’라는 의식을 서로 공유하게

되었다. 즉, 주민들이 함께 하는 소모임 활동이나 프로그램, 마을 사업의 참여는 이들의 정체성 형성에 기반이 된다. 주민들의 정체성은 관계적이고 문화적인 요소와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지역에 함께 살고 주민들이 그 지역문제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지역주민’ 더 나아가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공유하게 된다. 이러한 정체성은 지역주민의 자율성을 갖게 되는 근간이다. 또한 주민들은 여러 소모임을 통해 지역의 환경오염을 비롯한 가난한 노인, 다문화 가정의 애로점, 결식아동, 육아 등에도 관심을 갖고 주민활동의 폭을 넓혀 갔다. 주민들은 단체회비를 내거나 자신들이 가진 재능자원을 스스럼없이 서로 나누며 소통의 장을 넓혀 갔다.

셋째, 복지관 실무자들은 풀뿌리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와 공공기관, 단체 등과의 관계망, 곧 사회적 자본을 형성해 나갔다(문석진, 2013; Howe and Rev, 2001). 또한 이들은 지역사업을 중심으로 주민들과 기관, 그리고 지역자생단체와 함께 연대하면서 그들의 네트워크의 범위를 확장시켜 갔다. 이렇게 지역의 네트워크를 활용함으로써 주민들은 마을사업을 자체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이 확대되고 또, 환경적 여건을 갖춰갔다. 또한 실무자들은 공동체에 대한 학습과 훈련, 실천경험 등을 통해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역량이 강화되어갔다.

넷째, 마을 만들기 사업과정에서 주민들의 공동체 인식부족과 소극적인 참여, 인프라의 결핍 등으로 한계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실무자들은 과연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앞으로 지속될 수 있을까? 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낸다. 특히 지자체의 정책변경이나 예산 삭감으로 그간 전반적인 지역복지사업이나 서비스가 없어지거나 축소되어 왔던지라, 이 사업 역시 일시적인 유행으로 그칠 수 있다는 염려였다. 그럼에도 실무자들은 사업과정에서 주민들의 자율적인 의지와 역량

강화, 변화 등 공동체로의 발전가능성을 체험했다.

다섯째, 실무자들의 마을 만들기 사업과정의 경험은 이들에게 자기 성찰의 기회였다. 실무자들은 마을지향, 주민중심의 복지가치를 실현코자 기존 복지관의 역할과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변화를 시도하였다. 그 과정에서 서비스의 수혜자로만 여겨왔던 주민들의 역량과 능력, 자발성 등을 확인하게 된다. 또한 사회복지관이 단순히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달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주민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지역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위치에 있어야 함을 깨닫게 된다.

다음은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함의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복지관 실무자들이 마을중심의 복지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그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프라도 미비한 형편이다. 이에 실무자들에게 마을지향 복지, 공동체와 관련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과정이 필요하며 또, 주민 공동체를 조직화하고 이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매뉴얼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교육과정에 대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은 주민조직화 기술, 주민역량 배양, 협업 등 공동체 관련 지식과 기술을 함양하는 것으로 실무자들의 교육적 사회적 역량을 증대시킨다. 이를 통해 주민 중심, 마을중심으로 지역복지를 실천하는 관점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마을공동체 형성과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의 자생적 단체를 비롯하여 공공기관 등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협력은 유무형의 자원을 개발하고 연결하는 통로역할을 한다. 더욱이 정보공유와 상호 간의 참여, 협력은 공적서비스의 단편성, 획일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컨대, 지역자원을 연결시키는 아래로부터의 자원동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및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은 강화될 것

이다. 주민조직의 참여로부터 돌봄의 공공성은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셋째,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주민소모임을 통해 주민들 간의 상호작용이 확대되며 그에 따른 응집력이 증폭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주민소모임이나 자생적 단체의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들의 욕구와 필요를 반영한 소모임을 구성하고 이를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아울러 주민소모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사업의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민들 스스로 조직을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해야 한다. 이는 주민조직의 역량과 자생력 배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주민모임이 지역단체와 협업하고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자원이 요구된다. 이에 주민 자조모임의 운영과 이들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지자체, 민간조직 간의 연계가 필요하며 아울러, 지역사회에 숨어있는 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주민 간의 돌봄 공동체가 형성된다. 또한 이웃의 독거노인이나 급식을 못하는 아이들, 육아문제에 대해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상호 간의 신뢰적 관계망이 회복되었다. 그러면서 주민들에게 공동체 의식이 함양되고 그들의 정체성이 변화되어 갔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관계망을 회복하기 위해 두레나 협조동합, 마을기업 등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실천적 방안마련이 요구된다.

다섯째, 사회복지관이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주민과의 소통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일상적인 활동을 주민과 함께 하는 실천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의 대표적인 예가 주민과 함께 밥 먹기이다.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는 등 일상적인 활동 속에서 주민과의 관계가 강화되며, 가끔씩은 비업무적인 모임에도 참여할 수 있는 자세도 필요하다. 이처럼 공동체지향의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마을’은 장소나 공간을 뜻하는 물리적 개념보다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공통적 관심사나 관

계를 강조하는 기능적 개념으로 지역공동체를 지향함을 알 수 있다(김미현, 2013).

여섯째,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실무자들이 지역주민과 상호작용하고 그들의 생각이나, 욕구, 지역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주민들과 함께 마을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에 대한 공감대와 신뢰가 구축되어 협력하는 파트너로서 함께 할 수 있다. 또한 주민주도의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주민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주민들과 신뢰를 구축해 갈 수 있는 소모임이나 관련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일곱째,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육성시키는 지원과 노력이 부산시 지자체를 비롯한 시민단체, 사회복지관 등 다방면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아직 마을만들기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행정과 민간간의 협력, 연계 등을 위해 중간지원조직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중간조직을 통해서 행정과 민간 간의 연계, 인식차이 해소, 자원지원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주민참여와 주도성 향상에 주목하는 실천방향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업평가방식에 있어서도 표준화되고 정형화된 평가보다는 과정을 평가하는 정성평가방식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주도성 구축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 이는 곧 부산의 지역사회역량과 직결된다. 지역사회역량은 복지서비스 제공의 단편성과 지역주민의 수동성을 극복하여, 지역주민이 스스로 그들의 필요자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역량을 키우는 것이다. 따라서 부산이란 지역의 역량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문제 중심의 접근방식에서 전환하여 능동적이고 해결 중심의 접근법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닌다. 먼저, 본 연구는 사회복지관 실무자의 경력이나 직급에 따른 마을 만들기 사업경험의 차이를 분석해 내지 못했다. 연구결과에 차별적 경험을 모두 담아내지 못한지라 향후 다양한 요인에 따른 경험의 차이 및 공통성을 밝히는 연구수행을 제안한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부산이라는 지역에 국한되어 수집된 자료로부터 도출된 결과임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경험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향후 다른 지역의 사회복지관의 사업에 대한 차별적인 연구를 통해 보다 종합적인 논의와 과제를 제안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강상욱 · 김경화 · 반영운 · 백종인 · 한경민, 『마을만들기의 주민참여 과정 모형개발 및 적용』, 『한국도시행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5.
- 김미현, 지역재단 설립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시복지재단』, 2013.
- 김유진, 『지역공동체 내에서 나이들어가기 관점에서 살펴본 농촌 독거노인 공동생활거주체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71(1), 2016.
- 김진석·유동철, 마을지향복지관 역할강화 방안 연구, 『서울시복지재단』, 2013.
- 노병찬 · 주덕,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참여 만족도에 따른 사회적 자본 차이분석: 자발적 공동체 참여 경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0(1), 2016.
- 문건주, 『마을재생사업의 추진과정과 주민참여 실태연구-부산광역시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지구를 중심으로』, 동아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문석진,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공공사회연구』 3(2), 2013.
- 박광범, 『지역적 특성과 리더에 의한 농촌마을만들기의 지속가능성 고찰』, 『한국농촌건축학회지』, 14(3), 2012.
- 박수진 · 나주몽, 『마을만들기 사업이 사회적 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매개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28(4), 2015.

- 신중진 · 신희진,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주민의 역할변화에 따른 지원방안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26(10), 2010.
- _____,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계획과정에 관한 사례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4(2), 2018.
- 송호성, 『마을만들기 사업의 사회자본 형성과정-부산동구 매죽지 마을 만들기 사례 연구』, 동아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송혜승 · 이명훈 · 이명규, 『주민참여 마을 만들기의 선호사업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3(3), 2008.
- 송용훈 · 김용희 · 정문기, 『마을만들기에서 참여동기에 따른 주민참여가 유대감 및 신뢰에 미치는 영향-성미산 마을만들기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24(4), 2015.
- 이상훈 · 이권원 · 정윤남 · 김세용, 『마을만들기 추진과정의 성과 및 한계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4(1), 2013.
- _____, 『마을만들기 추진과정의 성과 및 한계에 관한 연구』, 『도시설계』 14(1), 2007.
- 이소영, 『마을 만들기에서 시민단체의 역할-서울시 북촌 지역을 사례로-』, 『공간과 사회』 25, 2006.
- 이은혜, 『마을만들기 지역주민의 참여경험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2015.
- 임경수, 『고령친화성을 고려한 마을만들기 활성화 방안』, 『도시행정학보』 29(4), 2012.
- 양재혁 · 한영숙, 『행정지원 마을만들기 사업평가에 관한 연구-부산광역시 2012년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을 중심으로-』, 『대한건설학회논문집』 15(3), 2012.
- 여관현, 『마을 만들기를 통한 공동체 성장과정 연구: 성북구 장수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26(1), 2013.
- _____, 『주민학습과 실천을 통한 마을만들기의 지속가능성 연구: 성북구 장수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9(3), 2015.
- 원준혁 · 김홍순,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사업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서울 휴먼시범사업에 대한 주민인식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3(6), 2013.
- 유창복,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의 배경과 과제-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개설에 즈음하여』, 『서울복지재단』 2013.

- 진재문, 「마을만들기 사업을 위한 자치단체의 주민참여 활성화 노력과 삶의 질의 관계: 주민의 인식을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45, 2014.
- 전경호, 「귀농인들에 의한 농촌의 마을 만들기 사례연구: 전라남도 D군 J마을을 중심으로」, 『농촌사회학회지』 23(1), 2013.
- 전원식 · 김남두 · 황의연,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사업의 주체 및 추진주체 분석」, 『도시설계』 9(4), 2009.
- 차성란, 「주민 주도적 가족친화마을만들기를 위한 기관의 역할-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4), 2010.
- 최승호, 「지역 마을공동체 만들기 운동의 발전 방안모색」, 『한독사회과학논총』 19(1), 2009.
- 최희영 · 이희정, 「주민참여 마을만들기에서 여성의 참여와 역할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6(6), 2014.
- 황주익 · 정규호 · 신명호 · 신중진 · 양영균, 『한국의 도시공동체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 Blunkett, D., "Toward a Social Policy: Service Delivery or Community Participation?" in Jordan, Bill and Nigel. Parton(ed). *The Political Dimension of Social Work Oxford*, Basil Blackwell, 1983.
- Ennis, Cretchen and Deborah West, "Exploring th Potential of Social Network Analysis in Asset-based Community Development Practice and Research", *Australian Social Work*, 63(4), 2010.
- Howe, B. and Rev. R. C., *Community Building: Policy issues and strategies for the Victorian Government*, Melborne, 2001.
- Lincoln Y. S. and Guba, E. G., "Do inquiry paradigms imply inquiry methodologies?", 89-115, in *Qualitative approaches to evaluation in education*, edited by Fetterman, D. M., New York: Praeger, 1985.
- Rothman, Jack, "Multi Modes of Intervention at the Macro Level." *European Journal of Social Work*, 5(2), 2001.
- Rubin, *Community Organization and Development* 4th ed. Boston: Ally and Bacon, 2007.
- Strauss, A. and Corbin, J.,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Newbury Park, CA: Sage, 1990.

Weil, O. M., "Community Building: Building Community Practice". *Social Work* 41(5), 1996.

Woodford, Michael, R., "Successful Community-Government Collaborative Policy Making: A case Study of a Workgroup to Improve Income Support Service to Victims of Intimate Violence", *Journal of Policy Practice*, 9, 2010.

투고일 : 2018. 06. 11. 심사완료일 : 2018. 07. 04. 게재 확정일 : 2018. 07. 18.
--

| Abstract |

The Exploring Study about the Experience of
Project of Community Building led by Community
Welfare Center in Busan

Shin, Yu-Ri

It is increasing diverse discussion about community according to social problems which are an aging society, family disorganization, a solitary life and accelerated poverty etc. Through community network and activity, movement practices are being processed diverse forme to get over social problems. Among those, each of local government push ahead with this project with expanding concerns of building up community as typical forme in community. Busan metropolitan city palaces emphasis on building community to revitalize local space, culture and economic and come through community as subjective welfare activities for environmental improvement, resident participation, religion organization with cooperation and self-help in religion falling behind. This study increases understanding community about building community in the community center of distant point as community welfare practice. On should explore experiences of this project what is the action and context of building community in Busan welfare center using qualitative research method. The discussion of community have been increasing lately. As that, this research focused on village community, specially to deeply understand experiences of making community projects led by community center. The individual interview carried out 12 practitioners in 5 Busan community center which doing

consistently community projects. The results is 5 themes like this: 'Self-reflection of provider and professionalism and learning community', 'Process of self-examination: person center, welfare practice saved residents dignity', 'Trust and building subjection of residents thought-capacity-autonomy', 'Governance accompanied with sharing among residents', 'Suggestion and limitation for sustainable community projects'. This results will be implied on fundamental resource for academical and practical discussion to shape and expand community in Busan.

keyword : community, making community, community center, practitioner, resident, social resource